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에 관한 연구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A Study of the Art Mode in Modern Fashion

Sun 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5. 14, 심사(수정)일: 2009. 7. 1, 게재확정일: 2009. 7. 15)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make clear fashion is an expression art displaying not only functional or commercial aspects, but creative functions as an artistic work by analyzing Art Mode and its values, and to help develop more creative design by combining fashion with art. In terms of method, relevant documents, precedent studies, and the works announced in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collections, such as Vogue, Fashion News, Gap, and Collections from 2000 to 2009. According to the findings, artistic works were used by the Art Mode in modern fashion. The respect of artists was expressed using historic famous painting works or current works in various fields, designers' individuality was shown by directly applying work messages to clothes, and fashion design was converted into a tool to communicate the messages like artistic works. Second, the various styles, using the formative character of modern art styles from animalism to modern abstractism, showed the creativity of design, transformed art into the art that enables to see the image of modern art, and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 newer creative design through the application of numerous art styles and the transformation of ideas. Third, the collaboration with artists was used. Fashion designers or fashion brands tried to change the images of works or brands in partnership with artists or to increase differentiated images. The future direction of fashion is a pursuit of new form and content to express fashion, not simply to use artistic works. It is expected that such pursuit will lead to more creative and artistic fashion design.

Key words: modern fashion(현대패션), art mode(아트모드), collaboration(콜레보레이션)

I. 서론

오늘날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간의 장르와 경계 초월의 경향은 각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하며 이를 통한 결과물들은 새롭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패션의 경우 항상 인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형태를 이루지만 패션은 예술성과 상업성, 개인과 사회의 구속력,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것, 그리고 미학적 아름다움과 사회적인 유용성간의 긴장을 나타내며, 이런 긴장에서 패션은 그 자체로서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게 된다.¹⁾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패션은 그 역사 속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예술양식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나타내왔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최근 들어 20세기의 전반적인 예술 사조를 수용하고 예술의 실용화 및 예술과 패션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연결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패션관련 여러 매체들에서 나타나는 패션의 예술화 및 패션의 아트모드 등과 같은 용어의 표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계의 영역을 넘어 뷰티, 마케팅, 인테리어, 전시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에 담겨진 의미와 개념을 통해서 예술작품과 같은 독창적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코드로서 패션 전반에 나타나는 예술적 경향을 아트모드라고 정의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대패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²⁾ 다양한 미학적 관점과 예술사조와 관련한 디자이너 작품 연구를 통해 연구되었지만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현대미술양식의 표현경향이나 아티스트들과의 공동 작업에 의한 아트모드의 경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 전반에서 표현되는 문화코드로서의 아트모드의 경향과 그 가치를 분석하여 패션이 기능적이거나 상업적인 측면만이 아닌 예술적 측면이 가미된 창조적 기능을 표현하고 있음을 밝히고, 패션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보다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전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하였으며, 현대패션에 표현된 예술관련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Vogue, Fashion News, Mode & Mode, Gap, Collections 등 국내외 패션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사진과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범위는 아트모드의 경향이 강하게 반영된 2000S/S부터 2009S/S작품까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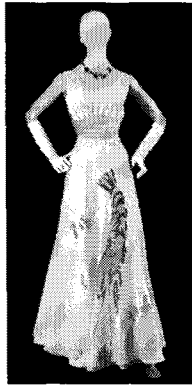
II.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교류

현대패션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이 접목되어 사회문화적 현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요소들 가운데 패션디자인의 창의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것은 예술양식이며 각 미술양식에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는 의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통된 표현기법을 보이면서 현대패션의 독특하고 개성적으로 나타났다. Horn과 Louis는 지난 150년 동안 의복에서의 유행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기능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 등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옵아트와 팝아트의 영향도 당대에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유행하였음을 설명하며 패션과 미술사조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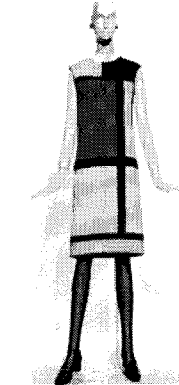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술과 패션의 미학적 담론은 몸과 의상을 미술의 매개체로 사용해 3차원적 표현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감상으로서의 예술의 개념과 신체를 감싼다는 의상의 기능성이 접목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몸을 위한 예술, 몸의 다양한 이미지를 살린 조형작업의 한 형태로서 패션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⁴⁾ 이 시기에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화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가 많았는데, 현대패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Poiret는 Raoul Dufy, Erte, Sonia Delaunay 등에게 텍스타일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복식과 예술의 접목을 시도하였다(그림 1)⁵⁾. Sonia Delaunay 역시 화가인 남편 Robert Delaunay와 공동 작업을 통해 회화 작업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켰으며, 동시성



〈그림 1〉 Paul Poiret, 1925



〈그림 2〉 Elsa Schiaparelli, 1937



〈그림 3〉 Yves Saint Laurent, 1965F/W



〈그림 4〉 Yves Saint Laurent, 1981F/W



〈그림 5〉 Paco Rabanne, 1986F/W

개념에 의한 화려한 색채의 기하학 패턴으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의 색채 효과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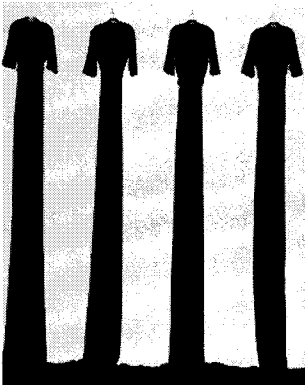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미래파들은 의상을 역동주의와 기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들에 연결시키고자하였는데, 무질서와 불균형, 광도와 과격한 색상, 감수성의 부활 등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Giacomo Balla와 같은 미래파들로 하여금 움직임의 감성을 통합할 수 있는 의상 형태를 고안하게 만들었다.⁷⁾ 또 1930년대 패션디자이너인 Elsa Schiaparelli는 당시대의 예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초현실주의 작가인 Dali, Jean Cocteau, Christian Berard 등의 작품에서도 영감을 얻거나 직접적인 차용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하였다(그림 2)⁸⁾.

제2차 대전 후 패션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분출과 그 시대의 추상미술 양식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1960년대가 되자 경제적인 호황을 바탕으로 직물산업의 기술개발, 인조섬유의 출현과 가공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기성복 산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부각된 대중이라는 코드와 맞물려 패션은 회화의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였고 이 시대를 풍미한 팝아트와 옵아트는 텍스타일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어 직물표면에 시각적인 효과가 강조되기도 하였다.⁹⁾ 한편 팝아트의 대표작가인 Andy Warhol은 자신의 팝아트 작품 이미지들을 직접의상에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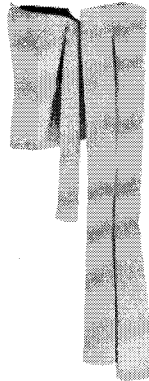
'Fragile Dress', 'Campbell's Soup Can T-Shirt'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또 1965년 Yves Saint Laurent에 의해 발표된 〈그림 3〉¹⁰⁾의 '몬드리안 룩'은 Mondrian 회화작품의 면분할과 원색대입이라는 가장 단순한 표현원리를 의상에 그대로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 예라 할 수 있다. 또 〈그림 4〉¹¹⁾는 Matisse의 작품인 〈La Dame en Blue〉를 모티브로 회화 속 이미지를 충실히 재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술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외에도 Yves Saint Laurent은 자신의 예술세계에 그림의 영역까지 끌어들여 Gogh, Picasso, Braque, Andy Warhol, Wesselman, Goya와 Velazquez에게서 까지 영감을 구했으며, 화가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컬렉션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1980년대 프랑스 현대미술작가인 Ben Vautier나 프랑스 자유구상주의의 기수인 Herve di Rosa의 작품을 활용한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이나 Paco Rabanne의 작품회화 이미지 차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5〉¹²⁾는 빛과 어둠의 조화를 이용한 바로크시대 프랑스 화가인 Georges de la Tour의 작품을 원피스 위에 그대로 프린트하여 예술적감성과 함께 그로테스크한 연출로 표현한 Paco Rabanne의 작품이다. 또 1990년대 이르러 Vivienne Torn은 Warhol의 작품인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드레스의 전면에 프린트함으로써 권력의 힘과 대중적 인물의 상품화를 시도하였으며, Issey Miyake



〈그림 6〉 Beverly Semmes, The Purple bathrobe&cloud hat, 1991



〈그림 7〉 Jean Charles Blais, 무제, 1997



〈그림 8〉 좌)Gogh, Vincent's bedroom, 1888, 우)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00F/W



의 〈Guest Artist〉시리즈의 경우 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데서 더 나아가 예술작가와 공동으로 패션을 제작한 사례라 할 수 있다.¹³⁾

20세기 말에 이르러 많은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의상의 변화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신체라는 화두를 통해 미술과 패션이라는 개별 장르로부터 이제는 서로 공유 가능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1970년대 미국의 섬유미술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술 의상 운동이나 1996년 이탈리아 피렌체 전시회, 1997년 뉴욕 구겐하임 소호 미술관의 'Art, Fashion' 전시회를 통해 더욱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¹⁴⁾ 이들의 작업은 기능성과 예술적 표현을 기반으로 한 의상에 있어 인체를 재해석하고 작가의 주관적인 창조성을 강조하여 고도의 개념적인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표현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림 6〉¹⁵⁾은 Beverley Semmes의 작품으로 목욕가운을 전시장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길이를 이용해 전시함으로써 의상의 볼륨과 공간과의 관계를 표현하였으며, Jean Charles Blais는 〈그림 7〉¹⁶⁾과 같이 신체의 윤곽선을 제시하기 위해 재킷과 바지의 형태를 단순히 벽에 설치함으로써 신체와 의상의 형태를 분리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조각적 장식으로 몸을 장식한 Wiebke Siem의 작업이나 수천 개의 안전핀으로 만들어진 재킷을 선보인 Mark Mahall의 작업 등 예술은 패션을 하나의 주제로 선택하여 상징적이고 개념

적인 표현을 나타냈다.¹⁷⁾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에 패션과 예술의 교류에 있어 일부 패션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교류 또는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아 작품을 전개시킨 반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은 현대 미술가들의 실질적인 의상 차용이나 단순한 의상 이미지의 차용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패션디자이너의 공동작업, 패션디자이너에 의한 미술관의 캣 워크화 등 패션과 예술은 다양한 조형적 실험들을 통해 여러 차원으로 흡수되고 결합되면서 그 경계의 초월은 급격히 확장되었다. Kenzo가 “예술은 오늘날까지 패션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¹⁸⁾라고 말한 바와 같이 현대패션의 예술적 표현이 점차 극대화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을 초월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의 경향

오늘날 패션과 예술이 경계가 있느니 없느니,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무색할 만큼 패션과 예술은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작용하면서 새롭고 독창적인 이미지 전개를 추구하고 있다. 2000S/S부터 2009S/S까지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예술 작품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한 경우, 현대미술양식의



〈그림 9〉좌)Keith Haring, Clack is Wack, 1986, 우)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02F/W

〈그림 10〉좌)Edgar Degas, Star, 1876, 우)Jean Paul Gaultier, 2003S/S

〈그림 11〉좌)Andy Warhol, Flower, 1963, 우)Versace, 2001S/S

조형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 그리고 아티스트와의 콜레보레이션을 활용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1. 예술작품의 직, 간접적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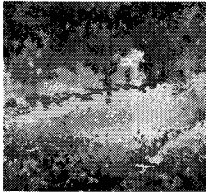
패션디자인의 형태나 실루엣이 한계상황에 와 있는 시점에 있어서 보다 큰 시각적 효과와 독창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수단인 바로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화 작품이나 일러스트 등을 그대로 프린트하여 도입하거나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복식의 예술성을 증대시키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하나로 채택되어 개성적인 이미지 표현에 용이하다 하겠다.

이러한 표현은 1980년대 Yves Saint Laurent의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직접적인 프린팅보다는 비즈장식이나, 애플리케, 자수, 부조적인 오브제 사용 등을 이용하여 회화 작품의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표현되는 예술작품의 직접적인 활용은 회화 속 이미지의 충실한 재현이기보다는 패러디를 이용한 다양한 이미지를 전개를 나타내기도 한다.

패러디는 작가의 작품이나 형식을 장난스럽게 모방한 것으로서 과거 기억 속의 이미지를 풍자적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창조의 전략이며 원작에 대한 경의를 지닌다. Taylor는 패러디가 예술적 독창성과 유일

무이성, 진품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개념들 같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검증하는데 이는 예술이 이제 그 자체나 의미를 잃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새롭고 다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⁹⁾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디자이너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은 2000F/W에 〈그림 8〉²⁰⁾과 같이 Gogh의 작품을 셔츠에 프린트하기도 하였고, 2001S/S에는 Roy Lichtenstein의 작품을 패러디하기도 하였으며, 2002 F/W에는 그라피티 작가인 Keith Haring과 Basquiat의 그라피티에 주목하여 패션과 미술의 결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림 9〉²¹⁾은 Keith Haring의 작품을 이용한 것으로 디즈니 캐릭터와의 조합을 통해 당시 발생한 미국 9.11 테러에 대한 순수과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 〈그림 10〉²²⁾은 Jean Paul Gaultier가 Degas의 무용수 그림을 프린트하여 발레리나 풍 드레스로 패러디한 작품이다. 오늘날의 예술이 자의식 적으로 과거 양식이나 원작을 모방함에 따라 패러디는 현대예술과 패션에서 중요한 창조의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나²³⁾ 이러한 표현들은 예술가에 대한 존경의 표현뿐 아니라 이들의 작품 속 메시지를 의상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패션 디자인 역시 예술작품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2〉 좌) Claude Monet, Irises
Monet's garden, 1900,
우) Akris, 2009S/S

〈그림 13〉 Celine,
2009S/S

〈그림 14〉 Louis
Vuitton, 2008S/S

〈그림 15〉
Celine, 2007F/W

〈그림 16〉 Giles,
2008S/S

또 Versace는 “난 강하고 눈에 띄는 이미지가 필요하다.”²⁴⁾라고 밝히면서 〈그림 11〉²⁵⁾와 같이 Warhol의 꽃무늬를 원피스에 프린트하기도 하였고, Akris는 〈그림 12〉²⁶⁾과 같이 빛의 화가로 불리는 Monet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고요한 자연의 빛 속에서 찾은 컬러와 형태 등 디자인에 있어 그 섬세한 감각을 더하기도 하였으며, 2009S/S Celine의 크루즈컬렉션은 자연과 동물에 중점을 둔 그래픽적 일러스트를 선보이는 미국의 모던 아티스트 Charley Harper의 야생동물 일러스트 중 뱀, 홍학 등 총 다섯 작품의 저작권까지 획득하여 〈그림 13〉²⁷⁾과 같이 디자인 및 액세서리에 응용하기도 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디자이너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Louis Vuitton의 Marc Jacobs 역시 2001년부터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이용하여 아트모드의 경향을 주도하였는데, 〈그림 14〉²⁸⁾는 2008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컬렉션 오프닝에 등장한 간호사복장에서부터 가방까지 모두 미국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Richard Prince의 작품들을 이용한 것이다. 또 패션디자이너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포토그래퍼의 작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림 15〉²⁹⁾은 일본 포토그래퍼 Mika Ninawa의 작품을 원피스 위에 표현한 것이고,³⁰⁾ 〈그림 16〉³¹⁾는 Mert&Marcus가 촬영한 패션모델 Kate Moss의 사진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프린트 물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를 전개시키기도 하였다.

현대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적 독창성이나 모방이라는 확고한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독창성을 끌어내 올 수 있는 디자이너의 의도와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작품의 직, 간접적인 활용은 현대예술가들에게는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길이며,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창작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또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겠다.

2. 현대미술양식의 조형성과 이미지의 활용

현대미술양식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전개는 패션의 예술화를 위한 새로운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데, 먼저 현대미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야수파는 자연적인 색채를 형태에서 분리시켜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강렬하며 원색적인 색채, 대담한 변형, 자유로운 기법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야수파의 특성이 패션디자인에 추구된 바는 〈그림 17〉³²⁾와 같이 야수적인 강렬한 색의 사용과 원색끼리의 대비, 보색대비, 단순한 형태로 대담한 조화를 이끌어 낸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또 야수파에서 영향을 받은 색채보다 분할된 면의 구성이나 면적 위주의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³³⁾한 큐비즘적인 모티브의 텍스타일디자인을 활용한



〈그림 17〉
Christian Lacroix,
2008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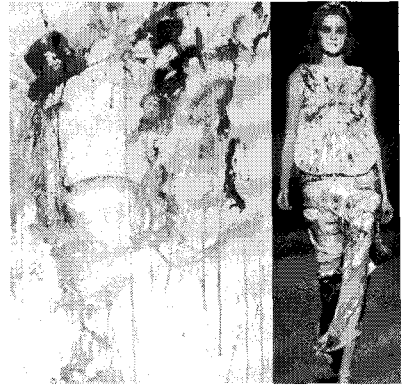
〈그림 18〉 Marc
Jacobs,
2007F/W



〈그림 19〉 Darks,
2008S/S



〈그림 20〉 Dloce
& Gabanne,
2008S/S



〈그림 21〉 작)Sam Francis, 회화, 1957,
우)Ann Delmeulmeester, 2006F/W

디자인의 전개 역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Braque와 Picasso와 같은 입체파들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전통적인 가치나 원근법은 배제하였으며 사물의 형태를 일정한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분석하여 표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07F/W에 Marc Jacobs는 정통 입체파와는 달리 화려한 색채를 추구한 입체파의 한 분파인 오르피즘의 작가인 Delaunay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전개하였는데,³⁴⁾ 〈그림 18〉³⁵⁾과 같이 단순, 변형, 종합의 과정을 거친 큐비즘적인 모티프는 1920년대 스타일과 조화되어 표현되었다.

그리고 색채와 형의 해방으로 비구상의 추상을 표현한 Kandinsky나 Mondrian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된 디자인 역시 새로운 이미지를 준다. 1960년대에 Yves Saint Laurent이 몬드리안 회화를 인체 위에서 다시 선과 색으로 재 표현함에 따라 새로운 조형미를 표현하였듯이, 점, 선, 면 등의 조형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객관적 실체나 내면의식을 시각화한 Kandinsky스타일의 추상표현³⁶⁾ 역시 〈그림 19〉³⁷⁾과 같이 프린팅기법을 통해 인체 위에서 입체적 추상이미지를 나타냈으며, 2007F/W에 Etro는 순수비구상미술의 선구자였던 Malevich의 영향을 받아 큐비즘적인 프린트를 선보이기도 했다.³⁸⁾

특히 추상표현주의는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형태나 무의식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20세기 현대미술의 변화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창조자에게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또 관람자에게는 창조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³⁹⁾ 이러한 특성은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디자이너와 이를 수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하겠다. 추상표현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직후 1940년대부터 10여 년간 미국에서 활동해 온 특정세대 내지 미술가 집단의 다양한 작품들을 총괄해 부르는 용어로서, 좁은 의미로는 미국의 액션페인팅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유럽의 앵포르멜과 그 주변의 움직임도 포함하며, 순수추상 즉 기하학적 추상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거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표현주의적인 양식을 말한다.⁴⁰⁾ 추상표현주의는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Pollock, Kooning, Francis, Kline 등이 대표적인 작가로 정열적이고 행위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액션페인팅과 또 다른 하나는 Rothko, Newman이 대표적인 작가로 순수하게 추상적이며 고요한 경향을 나타낸 색면 추상이다.⁴¹⁾

〈그림 20〉⁴²⁾은 의상을 캔버스 삼아 강렬한 색상과 터치감으로 추상회화의 한 작품과 같이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21〉⁴³⁾ 역시 의상 전면에 다양한 컬러로 뿌러지고 흘러내리는 듯한 드리핑 기법을 프린트하

여 Francis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또 미술사학자 Clark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자들에게 서체는 자동기술법을 대신한 방법이었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서체는 자동기술법과는 달리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정신 분석학적인 의미와 전혀 연관이 없고 화가의 충동적이고 자발적인 역동성만을 화면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그림 22〉⁴⁵⁾은 서체추상의 대표작가인 Franz Kline의 작품 〈뉴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텍스타일디자인으로 표현된 이러한 디자인은 힘찬 터치감과 함께 의상의 표면을 건축적으로 구축시키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 〈그림 23〉⁴⁶⁾은 2008S/S Jil Sander의 작품으로 색면 추상의 대표작가인 Rothko의 작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복잡한 디테일이나 장식적인 요소 없이 의상을 하나의 큰 화면으로 처리하고 색상만으로 강렬하면서도 순수한 색면 추상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패션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스타일닷컴'은 이를 'Rothko Effect'라 명명하기도 하였는데, Prada, Dries Van Noten, Marni 등 유명패션브랜드들 또한 색면 추상 작가들의 색 나눔 작업에 영향을 받은 파격적인 색의 조합을 이용한 작품들을 선보였다.⁴⁷⁾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활용된 다양한 미술양식 중에서도 특히 추상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회화가 더 이상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형태와 색채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고 분석하여 더욱 뚜렷한 개성과 주관으로 표현되었듯이 이러한 특성은 현대패션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되어 보다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추상표현주의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옵아트나 팝아트도 패션디자인에 적용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냈는데, 〈그림 24〉⁴⁸⁾와 같이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서클 모티브와 화려한 색상을 통해 입체적이고 울동적인 조형성으로 공간감이나 동적인 감각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팝아트 작가 Richard Hamilton이 “대중적이고, 일회적이고, 소모 가치가 있고, 저렴하고, 대량생산되고, 젊고, 재미있고, 섹시하고, 교묘하고, 매혹적이고, 그리고 대기업.”⁴⁹⁾을 연상시키는 어휘로 팝아트를 설명했듯이 팝

아트는 산업 사회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식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미술 내적인 개념인 변혁의 추구라고 할 수 있는 큐비즘이나 추상미술등과 같은 모더니즘 운동들과는 다른 차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⁵⁰⁾ 현대패션디자인에 있어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이용하거나, 코카콜라 캔, 캠벨수프 캔, Marilyn Monroe와 같은 대중스타들, 성조기 등을 이용하여 팝아트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림 25〉⁵¹⁾은 과거의 대중적 스타가 아닌 현 미국 대통령 Obama의 얼굴을 프린트하여 디자이너의 개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미국 대선과 이에 따른 현시대의 상황과 같은 의도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Dolce&Gabbana는 2008S/S 컬렉션에 대해 “뉴욕의 소호나 첼시의 수많은 아트 갤러리에서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 메시지를 담기 위한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방식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관객 앞에 그림한 폭을 내놓는 기분으로 컬렉션을 준비했다. 첫 룩에선 화이트가 중심이었다. 모든 그림의 기초인 흰 캔버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점점 색이 캔버스 즉 드레스 위에 나왔고, 색채의 분출이 마지막 드레스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착용하는 여성들이 유일무이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 핸드 페인팅 기법을 사용했으며, 한정 생산 될 그 옷들은 옷 자체의 가치를 더 특별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⁵²⁾라고 밝힌 대량생산되는 패션의 상업적 측면이 아닌 미술작품과 같은 회소성, 그리고 패션의 예술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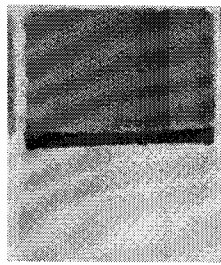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현대미술양식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식은 현대패션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 벌의 옷이 아닌 한 폭의 미술작품과 같은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디자인의 독창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바라보는 아트가 아닌 소유하고 착용할 수 있는 아트로 까지 전환시켰으며, 수많은 미술양식의 응용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새로운 창작디자인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 하겠다.

3. 아티스트와의 콜레보레이션(Collaboration)

콜레보레이션이란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고유의 산업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



〈그림 22〉 좌) Franz Kline, 뉴욕, 1953.
우) Giambattista Valli, 2007F/W



〈그림 23〉 좌) Mark Rothko, Red, Orange, Tan and Purple, 1949.
우) Ji Sander, 2008S/S



〈그림 24〉 Fendi, 2008S/S



〈그림 25〉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09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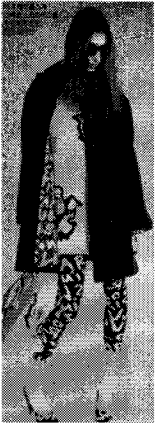
을 개척하는 전략적 도구를 말한다. 과거 제휴나 네트워크와 같이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고객이 추구하는 특정 가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브랜드 간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다. 심지어 생산자와 소비자, 제공자와 피 제공자 간의 경계가 없어지기도 하며, 이를 위해 이종 산업 간 벤치마킹은 물론 끈끈한 협력을 통해 공동 타깃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⁵³⁾

이러한 경영학에서 구축한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의 콜레보레이션의 개념은 디자인 분야에 있어 변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⁵⁴⁾ 디자이너 컬렉션의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이 전개되기도 하고, 또 패션브랜드와 아티스트의 공동 작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1998년 Puma와 JIS Sander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된 콜레보레이션의 성공은 여타 다른 디자인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어, 패션영역과 휴대폰, 기타 생활 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의 콜레보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을 합친 'Techart'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품기능은 물론 예술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마케팅 경향인 Tchart Marketing의 트렌드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휴대폰업계의 경우 삼성전자는 Anna Sui, Betsey Johnson 등 패션디자이너가 휴대폰을 디자인하였고, 모토로라와 LG 전자 역시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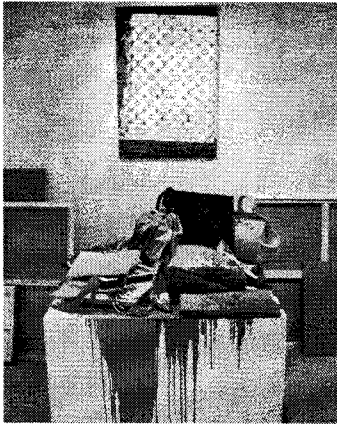
라다 폰과 돌체 앤 가바나 폰을 유럽에서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⁵⁵⁾

Marc Jacobs는 1997년 Louis Vuitton의 수석디자이너로 자리한 이래 2001S/S에는 Stephen Sprouse, 2002S/S에는 Julie Verhoeven, 2003S/S에는 Murakami Takashi, 2008S/S에는 Richard Prince 등 현대미술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한 컬렉션을 개최함으로써 Louis Vuitton에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시킴과 동시에 패션이 아트와 함께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2001S/S에 Stephen Sprouse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라피티와 플라워 프린트, 카무플라주로 변형한 장미프린트, 레오파드 프린트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린트들을 개발해 냈는데, 프린트 〈그림 26〉⁵⁶⁾는 Stephen Sprouse와 함께 작업한 프린트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그를 위한 헌정 컬렉션 중 한 작품이다. 또 〈그림 27〉⁵⁷⁾는 Richard Prince와의 공동전시 작품으로 전시 스튜디오에는 Louis Vuitton의 컬렉션을 위해 Richard Prince가 작업한 6개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작품 밑에는 해당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뉴백과 빈티지 풍의 슈즈들이 함께 디스플레이 되어⁵⁸⁾ 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혼합된 설치미술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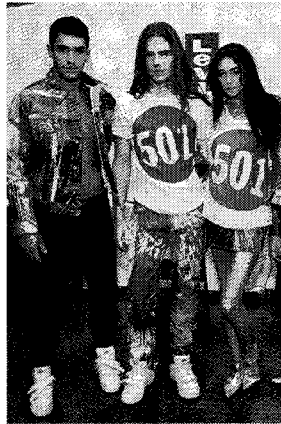
Christian Dior 역시 현대예술과 패션이라는 두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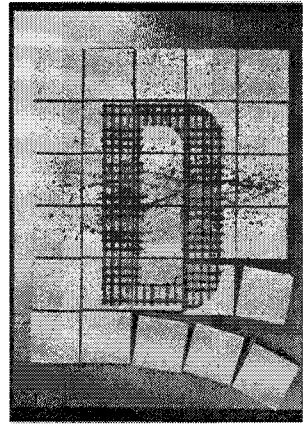
〈그림 26〉 Louis Vuitton, 2009S/S



〈그림 27〉 Louis Vuitton과 Richard Prince, 2008



〈그림 28〉 Levis와 Demien Hirst, 2008



〈그림 29〉 Darks와 이강욱, 2006

현 매체 사이에서 대화의 장이 되어 줄 〈크리스티앙 디올과 중국 아티스트전〉을 2008년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디올 오토쿠튀르에서 창조적인 영감을 얻은 중국 예술가 21명과의 공동전시 작업은 자본주의와 럭셔리리의 상징인 패션하우스, 그리고 변모하는 사회주의의 상징인 중국 현대예술가들의 만남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패션의 아트모드 경향을 입증한다 하겠다.

Lacoste는 브랜드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면서 패션 무크지 〈Visionaire〉와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패션디자이너 Karl Lagerfeld, 사진작가 Peter Lindbergh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12명이 라코스테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을 피케 셔츠 위에 프린트하였고, 이 셔츠를 〈Visionaire〉 54번째 무크지로 내놓음으로써 예술을 담은 티셔츠를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⁵⁹⁾ Levis는 마릴린 먼로의 패치, 갈겨 쓴 글씨, 신문 프린트 패턴으로 꾸며진 '위홀 팩토리 X'에 이어 〈그림 28〉⁶⁰⁾과 같이 영국 설치미술가인 Demien Hirst와의 협업을 통해 파격적인 스펀 페인팅 기법이 가미된 진이나 그의 작품 속 대표적 모티브인 해골과 짐, 나비 등이 프린트 된 티셔츠를 디자인함으로써 청바지나 티셔츠 한 장에도 현대미술의 티치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패션계에서 일어나는 패션과 아트의 만남은 과거와 달리 몇몇 명품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

고 국내 디자이너브랜드나 내셔널 브랜드들까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 지춘희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를 주제로 패션쇼를 개최하였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다양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찜지는 아티스트 낸시랭과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에 이어 앤디 워홀 재단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워홀의 작품 및 일러스트, 그래픽을 차용한 티셔츠와 구두, 프린트 원피스 등 다양한 패션 상품으로 콜레보레이션을 통한 팝아트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 년간 '세계를 빛낸 한국인과 예술을 빛낸 아티스트'로 문화마케팅을 추구한 Polham은 2007년 '폴햄 르네상스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아티스트 25명과 콜레보레이션 티셔츠를 제작하고 그들이 직접 구상한 비주얼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장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트 영역의 발전과 새로운 영역 확장, 그리고 예술을 통해 전 세계와 교류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⁶¹⁾

또 지난 2008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2008 국립 조르주蓬피두센터 특별전-화가들의 천국〉과 내셔널 브랜드 Tate는 '퐁피두 스페셜 에디션 티셔츠'를 디자인 했는데, Francis Picabia, Paul Klee, Matisse의 작품이 화이트 티셔츠에 간결한 그래픽 패턴으로 표현하여 이슈를 낳기도 하였다. 이 전시는 '아카르디아'라는 개념을 주제로 하여 20세기

이후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왔는지 그들의 신화와 역사와 문화, 문학과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으로, 브랜드 론칭 때부터 그래픽 아티스트 Miles Donovan과의 콜레보레이션을 시도한 브랜드 Tate가 이번 전시를 통해 또 다시 문화와 아트의 교류에 근접해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⁶²⁾ 이러한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미술관전시를 통해 패션과 예술의 교류를 인식시키는 계기로 만들기도 한다. 성곡 미술관에서 열린 ‘닥스 메이킹 히스토리’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작가 6명이 LG 패션 닥스 고유의 체크 원단과 단추, 닥스 매장 등을 가을 풍경화, 도자기, 설치미술 등에 담아냈다. 〈그림 29〉⁶³⁾은 닥스의 체크문양을 이용해 닥스의 상징문자인 D를 표현한 작가 이강욱의 작품이고, 이 외에도 캔버스 위에 닥스 단추를 촘촘히 붙여 닥스 원산지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를 표현하기도⁶⁴⁾ 하는 등 브랜드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다.

이와 같은 콜레보레이션은 무엇보다도 이미지의 변화와 차별성 그리고 가치상승을 위한 수단인 하나이며, 또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이벤트 효과로 마케팅적 측면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융합과 통합의 현상, 그리고 그 결과물만이 아닌 작업의 전개과정 모두가 이슈화되고 개념화되는 가운데 강한 개성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며,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의 내적가치

패션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각자의 영역을 넘어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패션이 모든 문화요소의 연결점으로서 총체적 예술의 일환”⁶⁵⁾이라고 했던 Warhol의 말처럼 패션과 예술은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요소로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호교류의 역사와 함께 최근 사

회전반에서 보이는 각 영역간의 경계초월과 협업, 그리고 첨단 디지털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다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예술에의 갈망 등은 패션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아트모드라는 경향을 이끌어 냈다고 하겠다. 특히 물질만능의 현대소비사회에 있어 다양한 상품과 디자인들은 고도의 예술적 측면과 소비자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패션은 이러한 경향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⁶⁶⁾ 하겠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유일무이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패션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그들의 작품에 기존의 유명미술작품이나 생존하는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접목시켰고, 미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컬렉션을 완성하는가 하면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패션브랜드와 아트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새로움을 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체 위에 입혀진 의상을 다양한 예술양식의 조형성을 표현한 하나의 캔버스와 같이 인식되게 하는 등 다양한 조형적 실험들로 단순히 옷을 착용하는 것이 아닌 현대미술을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디자인에 있어서는 유일무이의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는 과거와는 다른 젊음의 취향을 대변한다 하겠다. 이는 패션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세대교체의 영향을 반영하는데, 현대미술의 새로운 소비계층은 냉전 종식과 세계 경제 및 정치적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젊은 계층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수집하게 됨에 따라 전체 미술시장의 취향이 현대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각 패션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세대교체와 패션이 추구하는 젊음과 개성의 추구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다른 어느 장르보다도 현대미술양식은 패션디자인에 보다 풍부한 이미지를 전개시키고 있다. Louis Vuitton 회장 Yves Carcelle은 “현대미술과 패션의 합작으로 탄생된 제품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독창적

인 힘을 패션에 주입한다. 그 창의성은 이전까지와 확실히 구분된다.”⁶⁷⁾라고 하였고, Marc Jacobs 역시 “아티스트들과의 공동 작업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러나 무언가를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은 창조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대중, 매체, 그리고 전 세계의 역할이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현대미술 양식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전개는 패션의 예술화를 위한 그리고 패션디자이너와 대중 사이에 보다 많은 의미의 소통과 인식의 변화를 갖게 한다 하겠다.⁶⁸⁾

마지막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는 현대패션이 추구하고자 하는 작품의 전개방식과 소통의 과정을 대변함으로써 그 가치를 새롭게 나타낸다 하겠다. 패션디자이너들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 역시 패션과 아트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피사체의 옷차림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포토그래퍼 Cindy Sherman, 쇼핑백과 구두, 옷을 오브제로 현대인의 삶과 소외를 이야기하는 Sylvie Fleury, 피사체들이 입고 있는 누추한 옷차림으로 삶과 현실을 담아내는 Wolfgang Tillmans 등⁶⁹⁾ 많은 예술가들이 패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아트와 패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⁷⁰⁾는 Damien Hirst의 말처럼 영역의 구분이 아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방법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의 이미지를 옷에 단순히 옮겨 놓는다고보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패션이 추구하고자하는 아트모드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티스트의 작업을 옷에 대입하기보다 그 시즌 컬렉션을 대중에게 설득시키고자 단편영화나 세계적인 건축가인 Remment Koolhaas와 함께 만든 티셔츠 프로젝트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설명하는 Prada나, “나는 내 작품이 그려진 핸드백이 매장에 전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⁷¹⁾라고 하면서 Balenciaga의 전시를 총괄한 Dominique Gonzalez Foerster의 방식처럼 이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의 만남이라 하겠다.

오늘날 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의 경향은 패션디자인의 독창성 추구뿐만 아니라 작품의 예술적 가치

를 부여하고자하는 갈망으로 예술가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함으로써 패션의 영역을 넘어 예술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단순한 예술작품의 도용이 아닌 다양한 예술영역의 양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옷을 표현하고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한 창작의 의지라 할 수 있다.

V. 결론

현대패션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술과 의상의 접목으로 아트모드라는 트렌드를 나타내 예술의 실용화 및 패션의 예술화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 전반에서 표현되는 문화코드로서의 아트모드의 경향과 그 가치를 분석하여 패션이 기능적이거나 상업적인 측면만이 아닌 입을 수 있는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창조적 기능을 표현하는 표현예술임을 밝히고, 패션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보다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전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트모드의 경향은 첫째, 예술작품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과거 역사속의 유명 회화작품이나 현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예술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일 뿐 아니라 이들의 작품 속 메시지를 의상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디자이너의 개성을 나타내고 또 패션 디자인 역시 예술작품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표현되는 예술작품의 직접적인 활용은 회화 속 이미지의 충실한 재현이라기보다는 패러디를 이용한 다양한 이미지를 전개를 나타내기도 했다. 예술작품의 직, 간접적인 활용은 현대예술가들에게는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길이며,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야수주의에서 현대 추상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양식의 조형성을 활용한 다양한

양식은 현대패션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 되었다움이 아닌 한 폭었다미술작품과 같은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디자인의 독창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이고 강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또한 바라보다미술작가 아닌 소유하고 착용할 수 있으며, 옷을 통해 현대미술의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는 아트로 까지 전환시켰으며, 수많은 미술양식의 응용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새로운 창작디자인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티스트와의 콜레보레이션을 활용한 경우이다.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의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이 전개되기도 하고, 또 패션브랜드와 아티스트의 공동 작업으로 작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변화 시키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패션의 영역을 넘어 이벤트적인 전시나 프로젝트로 브랜드 홍보효과나 문화 마케팅 측면에서의 영역의 확대 등 차별화된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갖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다양한 조형적 실험들을 추구하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해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순수예술은 아티스트 한 사람의 내면적인 경험에 의존하며, 그 시각은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작업을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패션은 패션디자이너의 시각을 표현하기는 하나 그 결과물의 완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거친다는 점에서 순수예술보다 상업적이며 보다 강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컬러, 질감, 실루엣뿐만 아니라 인체의 곡선과 움직임까지 항상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패션은 다른 어떤 조형예술보다도 섬세한 예술적인 경향을 추구하게 된다. 단순히 예술작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닌 패션을 표현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추구야말로 앞으로의 패션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며,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예술적 감성을 지닌 패션디자이너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전혜정 (2007). *현대패션&디자이너*. 서울: 신정, p. 22.
- 2) 허정선 (2007). 20세기 현대미술과 패션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2), pp. 189-203.
- 이선화, 금기숙 (1993). 현대패션에 나타난 TEXTILE DESIGN 연구. *복식*, 21, pp. 113-127.
- 조말희 (1998). 현대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3), pp. 157-174.
- 정홍숙 (1991). Action painting이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논총*, 5, pp. 69-83.
- 한정희 (2004). *화화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정, 김민자 (2007). 순수미술과 패션 속의 물질성의 표현과 무정형성 경향. *복식*, 57(6), pp. 122-134.
- 신주영 (2008).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복식*, 58(8), pp. 1-12.
- 3) Marilyn, J. H. & Louis, M. G. (1981). *The Second Skin*.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1988). *의복: 제 2의 피부*. 서울: 까치, p. 382.
- 4) 허정선. *앞의 책*, p. 191.
- 5) Les collection du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Fashion*. Paris: Taschen, p. 442.
- 6) 이선화, 금기숙. *앞의 책*, p. 118.
- 7) Pandora, T. A. (1996). *Sculpted Dress, Looking at Fashion*. Firenze: Skira, p. 28.
- 8) Francois, B. (1997). *Elsa Schiaparelli*. Paris: Assouline, p. 47.
- 9) 이선화, 금기숙. *앞의 책*, p. 119.
- 10) Pierre, B. (1996). *Yves Saint Laurent*. Paris: Assouline, p. 32.
- 11) Bernard, H. L. (1986). *Yves Saint Laurent*. Paris: Herscher, p. 25.
- 12) Societe des Exposition du Palais des Beaux-Arts: Bruxelles. (1996). *Mode&Art 1960-1990*. Paris: Flammarion, p. 51.
- 13) 허정선. *앞의 책*, p. 196.
- 14) 서승미 (2004). *현대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
- 15) Florence, M. (1999). *Art & Mode*. Paris: Assouline, p. 1.
- 16) *Ibid.*, p. 24.
- 17) Pandora, T. A. (1996). *op. cit.*, p. 29.
- 18) Roberta, W. & Trudy, S. (1999). *Millenium Mode*. New York: Rizzoli, p. 125.
- 19) Taylor, B. (1991). *Modernism, Post-modernism, Realism*. 김수기, 김진송 역 (1993).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서울: 시각과 언어, pp. 90-91.
- 20) 좌) Carol, S. (1992). *클릭, 서양미술사*. 고호경 역 (2000). 서울: 예경, p. 331.
우) 2000F/W Collection (2000. 9). *Harper's Bazaar*, p. 102.
- 21) 좌)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search.da>

- un.net
 우)2002F/W Collection (2002. 5). *L'Officiel* 별책, p. 62.
- 22) 좌)이은경 (2001). *발레이야기*. 서울: 열화당, p. 97.
 우)2003S/S Haute Couture Collection (2003. 4). *Fashion news*, 84, p. 30.
- 23) 김선영 (2008).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3), p. 76.
- 24) Inspiration moments (2001. 3). *Elle*, p. 349.
- 25) 좌)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search.daun.net>
 우)2001S/S Collection (2001. 3). *Elle*, p. 349.
- 26) 좌)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search.daun.net>
 우)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7)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8) 2008S/S Collection (2008. 1). *W Korea*, p. 76.
- 29)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30) Arty Fashion (2007. 11). *Harper's Bazaar*, p. 128.
- 31)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32) 2008S/S Paris, London Collection (2007. 11). *Gap Press*, 79, p. 93.
- 33) 조말희. *앞의 책*, p. 167.
- 34) Arty Fashion, *op. cit.*, p. 128.
- 35)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36) 조말희. *앞의 책*, p. 167.
- 37) 2008S/S Collection (2008. 1). *Vogue*, p. 87.
- 38) Arty Fashion, *op. cit.*, p. 128.
- 39)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서울: 한길아트, p. 200.
- 40) Bernard, S. M. (1985). *The history of Art*. New York: Exter Books, p. 895.
- 41) 정홍숙. *앞의 책*, p. 73.
- 42) 2008S/S Collection (2007. 12). *Fashion news*, 128, p. 37.
- 43) 좌)Debra, B. (2005). *추상표현주의. 정무정 역* (2006). 서울: 열화당, p. 53.
 우)2006S/S Paris, London Collection (2005. 11). *Gap Press*, 67, p. 78.
- 44) 김현화. *앞의 책*, p. 226.
- 45) 좌)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서울: 한길아트, p. 225.
 우)2007F/W Paris, London Collection (2007. 4). *Gap Press*, 76, p. 84.
- 46) 좌)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search.daun.net>
 우)2008S/S Collection (2007. 12). *Fashion news*, 128, p. 22.
- 47) 추상회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 (2009. 5. 8). *조선일보*, A20.
- 48) 2008S/S Collection (2007. 12). *Fashion news*, 128, p. 59.
- 49) 최승규 (1997). *서양미술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p. 354.
- 50) 도유미 (2002). *현대예술사조와 이브 생 로랑의 작품 세계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51) 2009S/S Collection (2009. 2). *W Korea*, p. 48.
- 52) 아트모드 Epoch (2008. 1). *Vogue*, p. 87.
- 53) 올해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10대 키워드 (2009. 1.10). *조선일보*, C7.
- 54) 정훈실, 김영인 (2008).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영역간의 콜레보레이션. *복식*, 58(6), p. 112.
- 55) *예술과 패션의 만남*.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cafe308.daum.net>
- 56) 2009S/S Collection (2009. 2). *Harper's Bazaar*, p. 60.
- 57) 패션의 아우라를 훔친 예술, 예술의 아우라를 훔친 패션 (2008. 1). *W Korea*, p. 77.
- 58) *위의 책*, p. 77.
- 59) 예술, 패션의 만남. 자료검색일: 2009.2.20. 자료출처: <http://www.kukinews.com>
- 60) 아트모드 Epoch. *앞의 책*, p. 87.
- 61) Who Art You? (2007. 9). *W Korea*, p. 294.
- 62) 현대미술을 읽는다는 것 (2009. 2). *Harper's Bazaar*, p. 111.
- 63) 옷, 가방, 車..미술과 입맞춤하다 (2006.4.4). *조선일보*, B3.
- 64) *위의 책*, B3.
- 65) 미술과 패션, 그 질긴 사랑의 역사 (2005. 6). *Harper's Bazaar*, p. 154.
- 66) 전해정. *앞의 책*, p. 22.
- 67) 아트모드 Epoch. *앞의 책*, p. 88.
- 68) Temtation of the Artist (2007. 10). *Harper's Bazaar*, p. 222.
- 69) 아트와 패션 그 모호한 경계 (2006. 1). *W Korea*, p. 53.
- 70) 현대미술을 읽는다는 것. *앞의 책*, p. 111.
- 71) *위의 책*, p. 111.